

츠빙글리의 종교개혁과 『취리히 성서』

민경식*

들어가는 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비텐베르크(Wittenberg)의 도성교회(Schlosskirche) 정문에 95개 논제를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으로 번져나갔고, 그 결과로 로마가톨릭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종교공동체로서의 개신교가 태어났다.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꼭 500년이다.

루터의 개혁 모토 가운데 하나가 ‘오직 성서로’(sola scriptura)이다.¹⁾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부교수, 신약학

1)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모토로는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오직 은총으로’(sola gratia) ‘오직 성서로’(sola scriptura)라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로’(solus Christus)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soli Deo gloria)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들은 루터가 직접 제시한 것이 아니다. 20세기의 학자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을 평가하며 제안한 것들이다. 이 가운데 우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오직 성서로’인데, 이것이 루터의 개혁운동을 잘 표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H. van den Belt(“Sola Scriptura: An Inadequate Slogan for the Authority of Scripture,” *Calvin Theological Journal* 51 (2016), 204-226)는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운동에 대한 오해를 낳는다고 하며, J. C. Peckham(“Sola Scriptura: Reductio Ad Absurdum,” *Trinity Journal* 35 (2014), 195-223)은 이 원칙이 결코 논리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의 끝이 어떻게 되는 간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특히 츠빙글리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 성서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였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만큼 종교개혁운동은 성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를 기념하여 성서학 학술지 「Canon&Culture」는 2017년의 주제를 ‘종교개혁자들과 성서’로 정하고, 전반기에는 ‘루터의 성서해석’에 대한 글들을 소개하였다. 이제 후반기에는 루터 이외의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성서 이해 또는 그들의 성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글들을 심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된 이 글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Huldrych Zwingli)와 그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취리히 성서』(Zürcher Bibel)를 소개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츠빙글리의 선구자들, 잉글랜드의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보헤미아의 얀 후스(Jan Hus), 그리고 독일의 마르틴 루터를 살펴보고, 그들이 번역하였거나 사용하였던 성서의 특징과 그 의미를 먼저 밝히고자 한다. 이들의 사상과 그 시대적 정황이 스위스 개혁운동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츠빙글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취리히 성서』를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츠빙글리가 일으킨 스위스의 종교개혁운동을 살펴보고, 그의 개혁운동의 한복판에서 그가 번역한 『취리히 성서』가 차지하는 사회·정치적 의미에 대해, 또한 『취리히 성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츠빙글리 이전의 종교개혁자들과 성서

1.1. 존 위클리프(c. 1320-1384년)와 영어성서

16세기에 일어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앞서, 14세기말에 잉글랜드에서는 위클리프가 로마교황청에 대항하여 개혁운동을 일으켰다. “악한 성직자는 모든 직위에 대한 주장을 잃어버리며, 존경할 가치 없는 성직자의 현세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현세적 지배권을 부여받은 세속 통치자가 회수할 수 있다.”²⁾는 위클리프의 생각은 급진적인 개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만은 아니었다. 위클리프의 개혁운동은 성직자들의 부유한 생활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민중과 일부 귀족들을 만족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로마교황청을 비롯하여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고위 성직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그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였고, 로마가톨릭을 가리켜 ‘적그리스도’, ‘거만하고 세속적인 흉악한 도적과 강도’라고 표현하였다.³⁾ 이에 1378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는 위클리프의 체포를 명령하였으나,⁴⁾ 교황청의 영향력이 충분히 미칠 수 없었던 잉글랜드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었던 위클리프를 강력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⁵⁾

위클리프는 죽고 나서 21년 뒤에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년)에서 정죄되었고(1415년), 그로부터 13년 뒤에는 이미 44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그의 뼈가 화형에 처해졌다(1428년). 문제가 된 것은 위클리프가 성서를

-
- 2) W. 위커, 『세계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55. 이것은 그의 유명한 저서 *De civili dominio* (1375-1376)의 핵심내용이다.
 - 3) 김영진, “후스는 위클리프주의자인가: 15세기와 19-20세기 위클리프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40 (2016), 8.
 - 4) W. 위커, 『세계기독교회사』, 255-257. 1378년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4년 뒤에 캔터베리 대주교 코트니(William Courtenay)는 위클리프의 24가지 견해를 정죄하였고, 이에 위클리프는 다시는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위클리프의 대중적 인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었고, 그는 죽는 날까지 레스터셔(Leicestershire)의 루터워스(Lutterworth)에서 사역하였다.
 - 5) 1407-1409년 사이에, 즉 위클리프가 죽은 뒤 약 10여 년이 지난 뒤에 캔터베리 대주교 아룬델(Arundel)은 그의 영어성서를 불법으로 단죄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100년이 넘도록 위클리프 성서를 제작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그러한 이유로 잔혹하게 처형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위클리프의 성서가 250부 정도 남아있다는 것은 로마가톨릭교회의 단속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서는 크리스토퍼 드 하멜, 『성서의 역사』 (과주: 미메시스, 2006), 166-167을 보라.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성서의 시본은 대략 200개 또는 250개 정도 오늘날 전해진다. H. Hargreaves, “The Vernacular Scriptures: 3. The Wycliffite Version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2, ed. by G. W. H. Lam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388 (“nearly two hundred”); 크리스토퍼 드 하멜, 『성서의 역사』, 168 (“250부 정도”). L. 스톤, 『성경 번역의 역사』 (서울: 포이에마, 2011), 111 (“250여 권”).

영어로 번역하였다는 데 있었다.⁶⁾ 이미 전조가 있었다. 1411년 캔터베리 대주교 아룬델(Thomas Arundel, 재임 1397, 1399-1414년)이 교황 요한 23세(Pisan antipope John XXIII, 재임 1410-1415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비하고 해로운 인물인 존 위클리프가 ... 거룩한 교회의 신앙과 거룩한 교리를 공격하기 위해 ... 성서를 모국어로 번역하였다.”⁷⁾라고 보고한 바 있다. 위클리프의 성서번역은 라틴어 불가타 성서만을 인정하는 로마가톨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위클리프가 처음으로 성서를 영어로 번역한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영어번역이 있었다. 이미 7세기 중엽부터 성서가 영어로 번역되었다는 흔적이 발견된다.⁸⁾ 또한 위클리프 시대의 영어 성서들도 적지 않은 사본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⁹⁾ 그러나 이러한 사본들을 살펴보면, 위클리프 이전의 영어 성서들은 라틴어 성서를 대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라틴어 성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¹⁰⁾ 이 지점에서 위클리프의 번역은 이전의 영어 성서들과는 다른 특징과 독특성을 드러낸다.

그는 라틴어 불가타 성서의 권위를 대체할 영어성서를 번역한 것이다.¹¹⁾ 논란의

6) 사실 영어로 번역된 위클리프의 성서는 위클리프 개인의 번역이라기보다는 위클리프를 지지하는 그룹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7) H. Hargreaves, “The Vernacular Scriptures: 3. The Wycliffite Versions,” 387-388.

8) 박영배, “성서 번역의 역사와 위클리프 성서,” 『어문학논총』 18 (1999), 132-133.

9) H. Hargreaves, “The Vernacular Scriptures: 3. The Wycliffite Versions,” 388-390. 대영박물관과 보들리언 도서관 등 많은 박물관과 도서관에 위클리프의 성서가 아닌 14세기말 15세기초의 영어성서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다. 비록 일부의 사본들로 제한되지만, 위클리프의 번역과는 다른 중세의 영어번역 전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 H. Hargreaves, “The Vernacular Scriptures: 3. The Wycliffite Versions,” 389. 가령, 라틴어 본문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영어 번역과 짧은 설명이 뒤따르는 것을 보면, 영어 번역이 라틴어성서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1378년, 아직 성서번역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글 *De Veritate Sacrae Scripturae*에서 성서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H. Hargreaves, “The Vernacular Scriptures: 3. The Wycliffite Versions,” 393.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클리프는 라틴어 불가타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1380년대 초반에 출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그는 성서가 교회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주장하였다.¹³⁾ 위클리프에게 성서는 로마가톨릭 교황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러나 라틴어 불가타 성서로는 교황을 대적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불가타 성서는 로마가톨릭의 공식 성서였으며, 더군다나 그것에 대한 해석의 최고 권위자가 교황이었기 때문이다. 위클리프에게 라틴어 불가타 성서와 교황의 자리를 대신할 권위는 바로 영어 성서였다. 교황청이 인정하지 않는 영어 성서야말로 로마가톨릭에 대적할 수 있는 대안적인 권위였다. 위클리프 이후에 성서번역은 더욱 강하게 금지되었다.¹⁴⁾ 그러나 번역 금지 조치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다. 이후 영어 성서는 틴들(Tyndale)의 번역(1526년)으로 이어졌고, 최초의 공인된 영어 성서인 그레이트성서(the Great Bible, 1539년)¹⁵⁾와 제네바 성서(1560년), 주교성서(the Bishops' Bible, 1568년)등을 거쳐 킹제임스 성서(1611년)로 이어졌다.

1.2. 안 후스(c. 1369-1415년)와 체코어 성서

루터의 종교개혁 100여 년 전에 이미 보헤미아 지역에서 강력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으며, 그 운동의 중심에는 안 후스가 있었다. 가톨릭사제이자 프라하대학교의 총장이었던 그는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신약성서가 교회의 법칙”¹⁶⁾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토대로 로마교황청에 반기를 들고 개혁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가 신약성서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후스는 성서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¹⁷⁾

12) 이에 대한 논의는 크리스토퍼 드 하멜, 『성서의 역사』, 166-189를 보라.

13) W. 위커, 『세계기독교회사』, 255.

14) 1409년 캔터베리 대주교 아룬델(Arundel)은 13개 조항을 선포하는데, 제7조는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당시 위클리프의 성서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선포한 이후에도 위클리프 시대보다 더 오래된 영어성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드 하멜, 『성서의 역사』, 177-178. 또한 H. Hargreaves, “The Vernacular Scriptures: 3. The Wycliffite Versions,” 392.

15) 헨리8세가 공인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다.

16) W. 위커, 『세계기독교회사』, 258.

얀 후스의 모든 설교가 성서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성서야말로 교회의 절대적인 표준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¹⁸⁾ 로마가톨릭의 관례에서 벗어나서, 그는 체코어(보헤미아어)로 설교를 하였는데,¹⁹⁾ 이것만으로도 교황청의 불신을 쌓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그는 로마가톨릭의 관례에 맞서서 평신도들에게 성체(빵)뿐 아니라 성혈(포도주)을 제공하였다.²⁰⁾ 이러한 이종성찬(Utraquism)은 얀 후스 운동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얀 후스의 종교개혁운동이 위클리프의 사상과 운동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²¹⁾ 그러나 후스는 위클리프의 모방자(추종자)²²⁾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상가이며 운동가였다.²³⁾ 보헤미아에는 후스 이전부터 로마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일찍이 얀 밀리치(Jan Milič z Kroměříže,

17) Ján Liguš, "Master Jan Hus: Obedience or Resistance," *European Journal of Theology*, 24 (2015), 53.

18) Ján Liguš, "Master Jan Hus: Obedience or Resistance," 53.

19) W. 위커, 『세계기독교회사』, 259. 또한 박찬희, "보헤미아의 개혁자 얀 후스" 「새가정」 692 (2016), 23. 장운재, "얀 후스와 체코 종교개혁: 그의 화형 600주년을 맞이하여," 기독교사상 679 (2015), 227. 장운재는 체코 종교개혁이 '언어혁명'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

20) 얀 후스는 모든 삶이 빵과 포도주를 받아야 한다는 이종성찬을 주장하였다. 박찬희, "보헤미아의 개혁자 얀 후스" 「새가정」 692 (2016), 23.

21) 이전까지 잉글랜드와 보헤미아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는데, 14세기말의 황실 사이의 결혼으로 두 나라 사이에 교류의 물꼬가 트였다. 잉글랜드의 리처드 2세(Richard II, 1377-1399)와 보헤미아의 공주 앤(Anne)이 결혼을 하였고(1382년), 이를 계기로 체코의 학생들이 잉글랜드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으로부터 위클리프의 저작들과 사상을 들여왔다. 김영진, "후스는 위클리프주의자인가," 5.

22) 일찍이 후스를 위클리프의 모방자(추종자)라고 주장한 학자는 독일의 요한 로제르트(Johann Loserth)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김영진, "후스는 위클리프주의자인가," 13-17을 보라. 또한

23) 장운재, "얀 후스와 체코 종교개혁," 기독교사상 679 (2015), 230-231. 장운재는 후스를 독자적인 사상가로 표현하면서도, 위클리프의 영향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후스는 체코에서 새로운 대중적 개혁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 후스는 체코의 토착적 개혁운동의 정점을 이루었다고 보아야 할 것"(231)이라는 그의 진술은 궁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c. 1320-1374)는 체코어로 성만찬, 그것도 이종성찬을 베풀었다.²⁴⁾ 라틴어가 아니라 체코어로 성례를 집행하는 것 자체가 반로마운동의 일환이었으며, 더군다나 이종성찬은 로마가톨릭에 대한 저항일 뿐 아니라, 성직자들의 특권 폐지와 급진적 평등주의를 의미하였다. 밀리치가 이단으로 선고받고 처형된 이후, 그의 제자 마테이(Matěj z Janova, c. 1350-1393)가 개혁의 불씨를 이어받았는데, 그의 개혁의 중심에는 봉건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²⁵⁾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배경에서 얀 후스의 개혁이 일어났다. 후스 역시 체코어로 설교를 하였으며, 체코어로 성례를 집행하였다.²⁶⁾ 후스가 등장하기 전만 해도 보헤미아의 교회가 전 국토의 절반가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²⁷⁾ 후스의 종교개혁 뒤에는 교회가 소유했던 토지의 75% 이상이 사회로 환원되었는데, 15세기에 전 유럽에 걸쳐 봉건적 권력과 질서가 이렇게까지 파괴된 곳은 보헤미아 밖에 없다.²⁸⁾ 그렇기 때문에 후스의 종교개혁은 사회변혁을 위한 거대한 저항의 몸부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가 성직자들의 탐욕을 비판하며, 성직자들에게 세속 권력을 향유하거나 세속 영지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²⁹⁾한 것은 당시 로마가톨릭 교황청의 권력과 그에 기생하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던 고위성직자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1415년, 이미 죽은 위클리프가 정죄당한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년)에서 얀 후스도 체포되었고, 위클리프주의자로 정죄되어³⁰⁾

24) 장윤재, “얀 후스와 체코 종교개혁,” 231.

25) 장윤재, “얀 후스와 체코 종교개혁,” 232.

26) 후스가 체코어로 설교하였던 베들레헴 채플에 대해서는 T. 부타, 『체코 종교개혁자 얀 후스를 만나다』 (서울: 동연, 2015), 165-171을 보라.

27) 김영진, “후스는 위클리프주의자인가,” 6.

28) 장윤재, “얀 후스와 체코 종교개혁,” 234.

29) 김영진, “후스는 위클리프주의자인가,” 7.

30) 김영진, “후스는 위클리프주의자인가,” 3, 13; 박찬희, “보헤미아의 개혁자 얀 후스,” 『새가정』 692 (2016), 21-22. 얀 후스는 이미 1404년과 1409년에 위클리프주의 논쟁에 휘말린 바 있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김영진, “후스는 위클리프주의자인가,” 10-13.

화형에 처해졌다(1415년). 그런데 후스는 정말로 위클리프주의자였는가? 교황에 대한 두 사람의 비판적 견해는 동일하다.³¹⁾ 그러나 위클리프가 교황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후스는 교황제도의 폐지까지 주장하지는 않았다.³²⁾ 성만찬에 대한 견해도 둘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위클리프는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을 비판하는 반면에, 후스는 화체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³³⁾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로마가톨릭 교황의 권위를 비판하고, 고위성직자들의 부도덕성을 공격하면서, 라틴 어성서 대신에 자국어 성서를 사용하였다. 두 사람은 교황이 아니라 성서에 최종적인 권위를 둔다는 데 전적으로 일치하였다.³⁴⁾ 안 후스에게 체코어성서는 로마가톨릭의 교권과 로마교황의 특권적 위치에 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였다.

결국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안 후스가 위클리프주의자로 정죄되고 처형된 이유는 안 후스가 교황을 비판하며,³⁵⁾ 로마가톨릭의 공식 성서였던 라틴어 불가타 성서 대신에 체코어 성서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안 후스는 성서를 직접 번역하지는 않았다. 안 후스 이전에 이미 체코어로 성서가 번역되어 있었으며,³⁶⁾ 안 후스는 이것을 불가타를 그대로 개정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이 훗날 『프라하 성서』로 출판되었다(1488년).

1.3. 마르틴 루터(1483-1546년)와 독일어 성서

16세기 초 독일은 로마가톨릭의 경제적 착취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31) 김영진, “후스는 위클리프주의자인가,” 19,

32) 김영진, “후스는 위클리프주의자인가,” 20,

33) 김영진, “후스는 위클리프주의자인가,” 20-21,

34) 김영진, “후스는 위클리프주의자인가,” 22,

35) 로마가톨릭의 교황과 교황청에 대한 후스의 비판은 그의 글 “교회에 대하여”(De Ecclesia)와 “성직매매에 대하여”(De Simonia)에 잘 드러난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직매매에 대하여”는 M. 스펙카(역), 『개혁의 주창자들: 위클리프부터 에라스무스까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222-312를 보라.

36) 아마도 14세기에는 체코어로 성서가 완역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있었다. 로마교황청은 바티칸의 성베드로성당을 재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가장 착취하기 쉬운 곳이 독일 땅이었다. 이미 프랑스가 통일되었고(1453년), 스페인이 통일되었기 때문에(1479년), 그나마 로마교황청이 간섭하기 가장 좋은 곳은 제후들이 난립하고 있던 독일 땅이었다. 교황청은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면죄부를 공격적으로 판매하였으며, 이로 인해 독일의 하층민들은 더욱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알브레히트(Albrecht, 1490-1545년)는 도미니쿠스의 수도사 테첼(Johann Tetzel, 1470-1519년)을 앞세워 막대한 양의 면죄부를 판매하였다.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를 마인츠의 대주교구와 마크테부르크의 대주교구, 또 할버슈타트 주교구를 자기에게 맡겨준 교황 레오 10세(Leo X, 재임 1513-1521년)에게 상납하였다.³⁷⁾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도성교회 정문에 붙임으로써 면죄부 판매에 대한 신학적 토론을 제안하였다.³⁸⁾ 이에 루터는 테첼 뿐 아니라, 뢰핑나(Konrad Wimpina, c. 1464-1531), 에크(Johann Eck, 1486-1543년) 등과의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고, 알브레히트 일당은 루터를 교황청에 고발하였다.³⁹⁾ 결국 교황 레오 10세는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지 않는 루터를 파문하기에 이르렀다(1518년).⁴⁰⁾

루터는 보름스(Worms) 제국회의(1521년)에 소환되었고, 황제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취소하도록 강요를 받았으나, 거부하였다. 다행히도 당시 친로마 세력인 독일(신성로마제국)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였다. 독일 땅 전역에 흩어져있는 반로마 세력 제후들과 긴장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작센

37) W. 위커, 『세계기독교회사』, 295.

38) 우리말로 번역된 95개 논제는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31-40을 보라.

39) W. 위커, 『세계기독교회사』, 296.

40) W. 위커, 『세계기독교회사』, 296-297.

(Sachsen)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Friedrich)는 보름스 제국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루터를 납치하여 바르트부르크(Wartburg)로 데리고 갔다. 제후들에게도 루터는 꼭 필요한 존재였다. 독일황제, 또 그 뒤에 있는 로마가톨릭 교황과 갈등하던 제후들에게 루터는 자신들의 싸움에 정신적인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황의 위협을 피해 10개월간 바르트부르크(Wartburg)에서 숨어 지내면서 루터는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였고,⁴¹⁾ 그렇게 번역된 독일어 신약성서는 1522년에 비텐베르크에서 출판되었다.⁴²⁾ 이전의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로마가톨릭 교황과의 대결에서 루터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자국어 성서였다.

물론 루터가 번역한 성서가 독일어로 출판된 첫 번째 성서는 아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고트어⁴³⁾ 번역본들 가운데 4세기 중엽의 사본인 불필라(Wulfila) 사본이 있다.⁴⁴⁾ 독일어는 아니지만, 이 사본은 매우 초기부터 독일어의 뿌리가 되는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었음을 보여준다.⁴⁵⁾ 독일어로 된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은 9세기 초의 것이며,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서의 일부가 번역되어 사본으로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⁴⁶⁾ 최초의 인쇄본도 『루터성서』(Lutherbibel)보다

41) 1521년 보름스(Worms) 제국회의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루터를 선제후 프리드리히(Friedrich)가 납치하여 바르트부르크 성에 보호하였다. 루터는 이 강제적인 은거생활 중에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W. 위커, 『세계기독교회사』, 259.

42) H. Volz, "Continental Versions to c. 1600: 1. German Version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3, ed. by S. L. Greensla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94-97. 당시 루터의 독일어 신약성서는 *Das Neue Testament Deutsch*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는데, 여기에는 번역자의 이름도, 인쇄소나 출판사의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채, 철저하게 익명으로 세상에 나왔다. 이후에 구약성서가 부분적으로 출판되었으며, 1534년에 성서 전체가 번역, 출판되었다.

43) 인도-유럽어족인 게르만어파에 속하는 고트어는 지금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사어가 되었으나, 독일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44) 불필라(Wulfila)가 4세기 중엽에 번역한 사본이다. K. Aland /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 zweite, ergänzte und erweit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216-218을 보라.

45) 고트어 번역 성서에 대해서는 M. J. Hunter, "The Vernacular Scriptures: 1. The Gothic Bible,"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2, ed. by G. W. H. Lam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338-362를 보라.

약 50여 년 앞선다. 이미 1466년에 멘텔린(J. Mentelin)이 독일어 성서를 인쇄, 출판하였다.⁴⁷⁾ 그 이후로도 15세기에 독일어성서가 지속적으로 출판되었다.⁴⁸⁾ 이러한 사실은 이미 루터 이전부터 독일어 성서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이미 독일어 성서가 있었는데, 루터는 왜 성서를 독일어로 또 다시 번역하였는가? 기존의 독일어 번역 성서가 불가타의 번역이었던 데 비해,⁴⁹⁾ 루터는 원어로 된 성서(히브리어 구약성서와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이때 대본으로 삼은 것은 에라스무스(Erasmus)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2판(1519년)이다.⁵⁰⁾ 구약은 손치노(soncino)판 히브리어 성서(1494년)를 대본으로 하였다.⁵¹⁾

앞선 종교개혁 선구자들과 마찬가지로 루터에게도 자국어인 된 성서는 로마교황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런데 루터의 성서가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서나 얀 후스가 사용한 체코어 성서와 다른 점은, 두 선구자는 라틴어 불가타 성서를 번역한 자국어 성서였던 반면에, 루터는

46) 독일어역 성서의 역사에 대해서는 W. B. Lockwood, "The Vernacular Scriptures: 4. Vernacular Scriptures in Germany and the Low Countries before 1500,"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2, ed. by G. W. H. Lam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415-436을 보라. 특히 417쪽을 보라. 9세기 샤를마뉴 대제 시대의 사본 열여섯 쪽에 마태복음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 본문이 언제 번역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800년 이전에 번역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8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알레만 방언의 주기도문이 전해진다.

47) W. B. Lockwood, "Vernacular Scriptures in Germany and the Low Countries before 1500," 433. H. Volz, "Continental Versions to c. 1600: 1. German Versions," 94.

48) 1500년 이전에만 11개의 독일어 성서가 더 출판되었다. W. B. Lockwood, "Vernacular Scriptures in Germany and the Low Countries before 1500," 434.

49) H. Volz, "Continental Versions to c. 1600: 1. German Versions," 94, 99.

50) H. Volz, "Continental Versions to c. 1600: 1. German Versions," 99.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에 대해서는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53-161을 보라. 에라스무스는 최초로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출판하였는데 (1516년), 루터가 대본으로 삼은 것은 초판이 아니라 재판(1519년)이다.

51) H. Volz, "Continental Versions to c. 1600: 1. German Versions," 99.

성서를 원어에서 번역하였다는 데 있다. 로마가톨릭에 대한 명백한 저항이자, 교황의 권위에 대한 위협한 도발이었다.

2. 츠빙글리(1484-1531)와 스위스의 종교개혁

2.1. 스위스 연방과 취리히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운동은 당시 스위스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1291년, 우리(Uri), 슈비츠(Schwyz), 운터발덴(Unterwalden)이 동맹을 맺음으로써 시작된 스위스 연방은, 츠빙글리가 활동하던 1520년대에는 13개의 도시가 참여하는 연방이 되어 있었다. 취리히는 1351년 스위스 연방에 가입하였다.⁵²⁾ 스위스가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은 것은 17세기 중반이었으나, 이미 1499년 바젤 평화조약으로 스위스는 신성로마제국에서 이탈하여,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을 이루었다.⁵³⁾ 칸톤(Kanton)이라고 불리는 각 주들은 동등하고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각 칸톤은 종교, 또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츠빙글리가 활동하던 시대에 취리히는 이미 길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⁵⁴⁾ 16세기 전반에 취리히의 정치권력은 고관들에게서 길드로 옮겨졌다.⁵⁵⁾ 취리히는 한 사람의 통치자가 지배하는 도시가 아니라, 의회가

52) M. 하이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서울: 한국기독교교장로회출판사, 1999), 69.

53) W. P. 스티븐스,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33-34.

54) 1498년의 맹약서(der Geschworene Brief)에 취리히는 길드도시로 확인되고 있다. 길드들은 이미 14세기 중엽에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M. 하이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75.

55) W. P. 스티븐스,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36. 취리히에는 두 개의 의회가 있었는데, 대의회의 의원은 162명으로, 12개의 장인길드에서 각각 12자리씩, 그리고 귀족, 재산가, 상인들로 구성된 고관들이 나머지 18자리를 차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행정부 역할을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도시였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의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도시의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⁵⁶⁾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는 달리, 행정적으로 스위스의 교회는 결코 독립적이지 못하였다. 츠빙글리 당시 취리히는 콘스탄츠(Konstanz) 주교관구에 속해 있었는데, 대략 1,800개의 본당과 15,000여 명의 사제가 여기에 속해 있었다.⁵⁷⁾ 그러나 의회가 또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였다. 취리히에 있는 교회에 설교자들을 임명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취리히 의회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였다.⁵⁸⁾

취리히는 스위스 연방에서 교황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칸톤이었다. 15세기 초의 프랑스와 로마교황청 사이의 갈등에서 취리히의 평의회는 교황지지파가 득세하였고, 교황 사절뿐 아니라 교황 율리우스 2세(Julius II, 재위 1503-1513년)와 교황 레오 10세(Leo X, 재위 1513-1521년)의 오른팔이었던 쉬너 추기경(Matthäus Schiner, c. 1465-1522년)이 취리히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⁵⁹⁾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1차 전쟁(1521-1526년)이 발발하였을 때, 프랑스군에 용병을 파병하지 않기로 결의한 도시는 스위스 연방도시들 가운데 취리히가 유일하였다.⁶⁰⁾

하던 소의회는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길드와 고관들이 장악하였다. 또한 M. 하이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81을 보라. 하이스에 따르면, 정치권력이 고관들(신흥귀족들)에서 길드로 옮겨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1516년이다.

56) 가령, 1522년 취리히 시의회는 외텐바흐(Ötenbach) 수도원을 개혁주의 설교자들에게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 수도원은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도미니쿠스 수녀회의 오래된 기관이었는데, 츠빙글리는 수녀회의 저항에 맞서 시의회를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츠빙글리 자신이 이 곳 수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G. W. 브로밀리 (편), 『츠빙글리와 불령거』 기독교고전총서 19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64-65를 보라.

57) W. P. 스티븐스,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37.

58) W. P. 스티븐스,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37. 취리히 의회는 1518년에 츠빙글리를 취리히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그로스윈스터의 설교자로 임명하였다.

59) M. 하이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83. 교황은 취리히를 스위스 연방에 대한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60) M. 하이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83.

그런데 취리히의 종교세계는 윤리적으로 건전하지 못하였다. 콘스탄츠 주교관구에서만 일 년에 1,500명의 아이들이 사제들에게서 태어났다고 한다.⁶¹⁾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비난을 받을 일도 아니었다. 사제들이 아내와 가정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일상에서는 허용되는 관행이었기 때문이다.⁶²⁾ 로마가톨릭 사제였던 츠빙글리도 아인지델른(Einsiedeln)에서 목회하던 1516년과 1518년 사이에 여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어떤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정은 16세기에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⁶³⁾ 그러니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운동이 로마가톨릭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에 대한 도전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로마가톨릭에 대한 츠빙글리의 비판은 면죄부와 성상숭배, 시순절 금식규례⁶⁴⁾와 같은 종교적 관행들⁶⁵⁾뿐 아니라, 세금으로서의 십일조와 용병제도와 같은 사회문제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교황의 권위⁶⁶⁾에 칼끝이 향하고 있었다.

61) W. P. 스티븐스,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37.

62) W. P. 스티븐스,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37; M. 하아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88-89. 사제들의 내연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속죄비만 내면 끝이었다.

63) W. P. 스티븐스,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44-45. M. 하아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84. 하아스에 따르면, 츠빙글리는 이 일에 대해 어떤 죄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64) 시순절 음식규례에 대한 비판은 소위 “소시지 사건”(1522년)에 대한 츠빙글리의 옹호를 의미한다. 그는 “자유로운 음식 선택에 관하여”에서 시순절 기간에 육류(소시지)를 섭취하여 비판을 받고 있던 동료들을 변호하였다. 시순절에 육류의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성서적 근거가 없으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다. 츠빙글리, “자유로운 음식 선택에 관하여,” 『츠빙글리 저작 선집 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41-106. 또한 M. 하아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113-120을 보라.

65) W. P. 스티븐스,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46-48. 츠빙글리의 글 가운데서는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주해”에 이러한 비판이 체계적으로 잘 드러난다. 츠빙글리,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주해,” 『츠빙글리 저작 선집 3』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7), 37-418. 여기서 츠빙글리는 종교론, 신론, 인간론, 교회론, 성례론 등과 같은 거대담론뿐 아니라, 열쇠의 권세, 사제의 독신 문제, 결혼생활, 서약, 연옥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진술한다.

66) 중세시대에 교황과 교황청이 누리던 절대권한에 대해서는 T. 조지, 『개혁자들의 신학』 (서울: 요단출판사, 1994), 37-38을 보라.

2.2. 취리히 논쟁과 스위스의 개혁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츠빙글리⁶⁷⁾의 종교개혁은 사상적으로 인문주의에서 출발한다. 그는 이미 초기부터 인문주의를 토대로 교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⁶⁸⁾ 그래서 츠빙글리는 취리히에서 활동하던 도미니쿠스와,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리고 성프란체스코파와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취리히 정부는 교회의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1523년 1월, 취리히 논쟁이 일어났다. 몇 달 뒤에 일어난 두 번째 논쟁과 구분하기 위해 이 첫 번째 논쟁을 1차 취리히 논쟁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교리 또는 신앙의 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교황청이었으니, 이런 문제를 두고 토의와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로마가톨릭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도전이었다.⁶⁹⁾ 또한 취리히 정부는 교회의 전통을 근거로 토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로지 성서를 근거로 주장을 펼칠 것을 사전에 통보한 상태였으니, 이미 취리히 정부는 성서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인정한 셈이다.⁷⁰⁾ 그러니 이 논쟁은 처음부터 츠빙글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논쟁의 한복판에 선 츠빙글리는 67개 논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같은 해 7월에 출간한 “67개 논제에 대한 해설”은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의 67개 논제는 개인적, 종교적 차원의 내용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개혁 프로그램을 담고 있었다.⁷¹⁾ 그렇지만 이 논제의 밑바탕에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성서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근본사상이

67) Gottfried W. Locher, “Zwingli und Erasmus,” *Zwingliana* 13 (1969), 37-61.

68) M. 하아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84. 츠빙글리가 그로스뮌스터의 설교자로 임명될 때 논란이 있었는데, 그가 인문주의에 기반을 두고 강도 높게 교회를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69) M. 하아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126.

70) M. 하아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127. 논쟁이 일어난 그 공간에는 칠십인역과 히브리어 구약성서, 그리스어 신약성서, 그리고 라틴어 불가타 성서가 놓여있었다.

71) W. P. 스티븐스,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49.

깔려있었다.

같은 해 10월에 2차 취리히 논쟁이 일어났다. 1차 취리히 논쟁이 성서원칙주의를 공식화하였다면, 2차 취리히 논쟁은 교회의 예식에 이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성상과 미사이다. 이 논쟁에서 츠빙글리는 성상파괴와 미사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여긴 취리히 정부는 당분간 미사와 성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⁷²⁾

2차 취리히 논쟁 이후에 츠빙글리는 라틴어 대신에 독일어로 세례예식을 진행하였다(1523년). 이듬해에는 성상파괴 운동이 일어났다(1524년).⁷³⁾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츠빙글리의 주장대로 가톨릭적인 미사가 폐지되고, 말씀 즉 성서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졌다(1525년).⁷⁴⁾ 성찬예배도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진행되었다.⁷⁵⁾

취리히에서의 개혁에 자극을 받은 베른(Bern)과 바젤(Basel)과 샤프하우젠(schaffhausen)이 개혁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Uri(Uri)와 슈비츠(Schwyz)와 운터발덴(Unterwalden)과 추크(Zug)와 루체른(Luzern) 등 다른 칸톤들은 여전히 로마가톨릭의 영향 아래에 남아있기를 원하였다. 두 진영 사이의 갈등이 극대화되었고, 결국 1529년에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것이 1차 카펠전투이다. 취리히와 베른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우세하였고, 이에 개혁파에 유리한 조약을 맺으며 취리히는 종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531년에 취리히는 2차 카펠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츠빙글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며, 스위스에서의 개혁은 잠시 휴지기를 맞게 되었다.

츠빙글리가 일으킨 16세기의 스위스의 개혁은 단지 개인의 신앙의 자유만을 위한 투쟁은 아니었다. 스위스 용병들의 군중신부로 마리그나노 전투

72) M. 하아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148-151.

73) 1524년 오순절 이후에 성상이 제거되었다. M. 하아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144-153.

74) M. 하아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161-165.

75) W. P. 스티븐스,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56.

(1515년)에 참가하였다가 치절한 패배를 경험한 츠빙글리에게는 개인의 영혼 구원보다 공동체의 구원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이다.⁷⁶⁾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스위스인들을 억압하는 모든 굴레, 특히 로마가톨릭의 간섭과 통제로부터의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위한 몸부림이었다.⁷⁷⁾

3. 츠빙글리와 성서

3.1. 츠빙글리의 성서관(觀)

앞선 다른 개혁자들(위클리프, 후스, 루터)과 마찬가지로 츠빙글리 역시 ‘교황의 권위를 넘어서는 권위’로서의 성서를 강조하며, 최종적인 권위를 오직 성서에 두었다. 츠빙글리에게 성서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자, 가장 강력한 추진체였다.⁷⁸⁾ 누구와 논쟁을 하든지, 그는 성서를 무기로 삼았으며, 이에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교회의 전통은 모조리 거부하였다. 그의 성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프로페차이(Prophezei)’⁷⁹⁾라는 성서연구 모임으로 구체

76) J. 발만, 『종교개혁 이후의 독일 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87.

77) 1524년 스위스 연방 12칸톤에 쓴 글에서 츠빙글리는 자신의 개혁운동의 정치적, 사회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특히 외국의 지배자들로부터의 완전한 독립과 자치를 츠빙글리는 역설한다. 츠빙글리, “스위스 연방에 대한 간곡한 경고,” 『츠빙글리 저작 선집 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373. 일찍이 스위스 연방 가운데 가장 오래된 슈비츠 칸톤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도 외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다. 외국의 권력자들에게 용감하게 저항하고, 결코 외세에 종속되지 않기를 역설한다. 츠빙글리, “슈비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 『츠빙글리 저작 선집 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107-133.

78) Sigrist는 츠빙글리와 『취리히 성서』를 소개하는 글 맨 첫 문장에서부터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운동 한복판에 성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C. Sigrist, “<Sola scriptura> - Alleins die Schrift: Zur Beobachtung der Bibel damals und heute,” *Die Zürcher Bibel von 1531: Entstehung, Verbreitung und Wirkung*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11), 8.

79)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따온 ‘예언’이라는 뜻의 프로페차이라는 모임은 18세기까지 이어졌다.

화되었다.

1525년 여름에 츠빙글리는 성서연구 모임인 프로페차이를 시작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훗날 『취리히 성서』라고 불리는 성서의 신약부분(1524년)이 출간된 이후이다. 취리히의 설교자들과 목회자들과 학생들이 매주 다섯 차례 모여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성서를 읽었다.⁸⁰⁾ 이 모임의 활동 결과로 성서 전체를 번역하여 출판하기에 이른다.⁸¹⁾ 구약은 루터의 구약성서(1534년)가 나오기 세 해 전인 1531년에 출판되었다. 프로페차이 성서연구모임의 결실이었다.

츠빙글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을 성서에서 찾으려 하였다.⁸²⁾ 신성로마제국의 카를5세 황제에게 제출하는 글의 형식으로 된 “믿음의 내용”(1530년)에서 츠빙글리는 12가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진술하는데, 모든 것을 성서를 근거로 진술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서에 근거하고...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쓰는 것이 정당”⁸³⁾하다고 하였다. 그에게는 성서의 논증만이 유일무이한 권위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1차 취리히 논쟁에서 제시한 67개 논제의 첫 번째 항⁸⁴⁾은 교회의 권위에

H. F. Lavater, “Die Zürcher Bibel von 1524 bis Heute,” *Die Bibel in der Schweiz: Ursprung und Geschichte*, ed. by U. Joerg, D. M. Hoffmann (Basel: Schwabe & Co., 1997), 199.

80) 그러나 츠빙글리는 이전부터 라틴어성서 이외에도 원어로 성서를 읽는 데 열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로페차이를 시작하기 전인 1524년에 쓴 “목자”에 보면, 츠빙글리는 “원래 나는 아무 글도 쓰지 않고, 약 반년 동안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로 된 구약 성서만을 비교하면서 읽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한다. 츠빙글리, “목자,” 『츠빙글리 저작 선집 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297.

81) 구약은 부분적으로 하나씩 출판되다가 1531년에 완역이 출판된다. 출판 역사에 대해서는 H. F. Lavater, “Die Zürcher Bibel von 1524 bis Heute,” 200-204를 보라.

82) 가령, ‘소시지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에서 그는 “오직 성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이어 “성서는 그러한 불의에 대하여 ... 분명하게 대답할 것”이라고 하였다. 츠빙글리, “자유로운 음식 선택에 관하여,” 50. 또한 “최종적인 답을 성서에서 찾아 ... 제시”한다고 하였다(59).

83) 츠빙글리, “믿음의 내용,” 『츠빙글리 저작 선집 4』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118.

84) “복음이 교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복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예속되지 않는 복음서의 권위를 전제로 한다. 16항에서는 로마가톨릭의 교리가 구원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⁸⁵⁾

성서해석의 권위도 교황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되지 않는다고 츠빙글리는 주장하였다. “하나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1523년)에서 츠빙글리는 교황 권력의 근거를 복음서에서 끄집어낼 수 없다고 선언하며, “성서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교황주의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⁸⁶⁾고 진술하였다. 그리고는 아라우스의 예를 들며, 교황들과 교회공의회가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⁸⁷⁾ 그는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교황)을 의지하는 사람과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을 대조시키며,⁸⁸⁾ “사람(교황)이 말하는 올바른 입장은 필요 없으며, ...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⁸⁹⁾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로마가톨릭 교회가 “자기들(주교들과 교황들)의 말을 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원수, 곧 마귀의 교회”⁹⁰⁾라고 규정하였다.

츠빙글리는 성서해석에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성령은 속이지 않는다.”⁹¹⁾ 성서와 그 진리를 하나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⁹²⁾ 그러나 성령이 결코 성서를 대신할 수는 없다. 사실 츠빙글리는 로마가톨릭과만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통을 지키려는 로마가톨릭 세력뿐 아니라 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과오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85) “67개 논제에 대한 해설과 근거”는 『츠빙글리 저작 선집 2』에 포함된 내용인데, 우리말 번역이 아직 출판되지 않았다. 16항의 해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독일어 원문을 보라. Zwingli, “Auslegung und Begründung der Thesen oder Artikel,” *Huldrych Zwingli Schriften II*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95), 87-122.

86) 츠빙글리, “하나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 『츠빙글리 저작 선집 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173.

87) 츠빙글리, “하나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 183.

88) 츠빙글리, “하나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 187.

89) 츠빙글리, “하나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 183.

90) 츠빙글리,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주해,” 215.

91) 츠빙글리, “믿음의 내용,” 118.

92) 츠빙글리, “하나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 191-192.

급진주의자들(재세례파 등)과도 싸워야만 했다.⁹³⁾ 전자는 권위의 중심에 교황을 놓았으며, 후자는 그 자리에 성령을 놓았다. 반면 츠빙글리는 앞선 종교개혁자들(위클리프, 후스, 루터)과 마찬가지로 중세교회에서 교황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 성령이 아니라, 성서를 놓았다.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을 받아들이는 급진주의자들, 특히 재세례파에 반대하여, 츠빙글리는 신약과 구약을 모두 인정하였다.

츠빙글리에게 성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며, 교황의 말은 인간의 것이었다. 츠빙글리에게 성서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개혁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3.2. 『루터성서』와 『취리히 성서』

루터의 독일어 신약성서(1522년)가 이미 출판,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츠빙글리는 루터의 번역을 개정하여 새로운 성서를 출판하였다(1524년). 흔히 이 성서는 츠빙글리가 중심이 되어 루터의 독일어 신약성서(1522년)를 알레만어(Alemannic)로 개정하여 출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⁴⁾ 그러나 츠빙글리는 루터의 번역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루터와는 달리 츠빙글리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똑같이 인정하는 문서에서도 루터의 본문도 기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다. 가령, 소위

93) 가령, 츠빙글리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마술사 시몬이나 아나니아나 가롯 유다의 예를 들며 재세례파의 주장을 일축한다. 츠빙글리, “믿음의 내용,” 120-121. 세례에 대한 츠빙글리의 생각이 이어진다(121-125).

94) 박동현 / 이상원,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le,” 「성서원문연구」 40 (2017), 267. 또 F. Simmler, “Synchrone lexikalische, syntaktische und makrostrukturelle Variabilität in Luthers Septembertestament 1522 und der deutschsprachigen Zürcher Bibletradition von 1524 bis 1535,” *Zeitschrift für Deutsche Philologie* 127 (2008), 190을 보라. 짐라는 1524년에 출판된 『취리히 성서』의 신약에 해당하는 부분이 루터의 것(1522년판)을 복제한 것(Nachdruck)이라고 규정한다. 이 밖에 또한 H. F. Lavater, “Die Zürcher Bibel von 1524 bis Heute,” 200-201을 보라. 라바터는 1524년부터 1527년을 ‘루터의 본문을 받아들인 시기’로 구분한다.

‘요한의 콤파’라고 하는 요한1서 5장에서 두 번역은 차이를 드러낸다. 루터 번역(1522년)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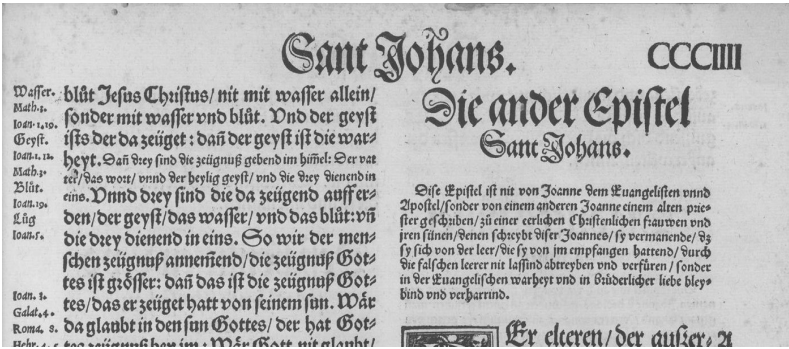
Denn drey sind die da zeugen, der geyst, vnd das wasser, vnd das blut, und die drey sind eynis.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영과 물과 피이다. 그리고 이 셋은 하나이다.)

반면에 츠빙글리가 개정한 해당 본문은 더 길다. 사소한 차이는 제쳐두고라도,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아래는 1531년에 구약과 합본되어 나온 『취리히 성서』의 본문이다.

Dan drey sind die zeügnuß gebend im himel: Der vater, das word, vnnd der heylig geyst, vnd die drey dienend in eins. Vnnd drey sind die da zeügend auff erden, der geist, das wasser, vnd das blüt, vnd die drey dienend in eins.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그리고 이 셋은 하나이다. 또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영과 물과 피이다. 그리고 이 셋은 하나이다.)

츠빙글리는 루터의 번역을 따르지 않고, 불가타의 본문을 따라 밑줄 친 부분, 즉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그리고 이 셋은 하나이다. 또 땅에서”를 추가하였다. 이 긴 본문은 그리스어 사본전통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본문이다. 에라스무스가 최초로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출판하였을 때(1516년), 짧은 본문이 인쇄되었다. 2판(1519년)에서도 역시 짧은 본문이 인쇄되었다. 그러다가 3판(1522년)에서 긴 본문이 채택되었다. 에라스무스는 자기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는 비판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불가타의 긴 본문을 인쇄하였다.⁹⁵⁾ 루터는 1519년의 2판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루터

95)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성서에 대해서는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152-161을 보라. 다만, 166쪽의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개정판에서 수정할 계획이다.



성서』에는 짧은 본문이 인쇄되어 있다. 그런데 츠빙글리의 신약성서에 긴 본문이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기계적으로 루터의 본문을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서만큼은 루터의 본문을 포기하고, 에라스무스 3판과 불가타의 본문을 따랐다. 그런데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된 부분이 작은 글씨체로 되어 있다.⁹⁶⁾ 이 구절이 본문비평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츠빙글리는 구약을 번역하여 1531년에 출판하였으며,⁹⁷⁾ 이는 루터의 구약번역보다 3년 앞서는 것으로서, 원어(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번역하여 인쇄, 출판한 최초의 독일어 완역성서가 되었다.⁹⁸⁾

96) 이후 『취리히 성서』는 본문비평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절에서 현대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날의 『취리히 성서』에는 요한의 콧마가 짧은 형태로 번역되어 있다(Drei sind es nämlich, die Zeugnis ablegen: der Geist und das Wasser und das Blut, und diese drei sind auf das Gleiche ausgerichtet). 『취리히 성서』의 개정 역사와 그 원칙에 대해서는 박동현과 이상원의 서평,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le,” 265-291, 특히 267-268을 보라.

97) 번역 작업은 이미 1529년에 마무리되었다. C. Sigrist (ed.), *Die Zürcher Bibel von 1531*, 뉘른저.

98) 『취리히 성서』의 당시 정식 명칭은 ‘Die ganze Bibel’이었다. 이후 ‘Bibel Teütsch’, ‘Bible’, ‘Biblia’, ‘Die Bibel’을 거쳐, 1931년 이후로 ‘Die Heilige Schrift’라는 제목으로 출판되고 있다.

나가는 말

종교개혁은 단지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종교개혁운동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행되던 부당하고 부정한 것,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을 바로 잡는 차원의 정화운동을 넘어선다. 그것은 유럽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회적, 정치적 혁명이었다. 로마가톨릭 교회와 그 중심에 있던 교황을 구심점으로 일원화되어 있던 유럽사회가 다원화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이었다. 로마가톨릭의 교황에게 저항하고, 로마가톨릭으로부터 독립된 세력을 형성한 개신교도들은 교황의 자리를 대신할 구심점으로서의 권위가 필요하였고, 위클리프와 후스와 루터와 츠빙글리는 성서를 그것으로 삼았다. 그들에게는 성서야말로 교황의 전통적인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라틴어 성서로는 부족하였다. 최종적인 해석의 권위를 교황이 쥐고 있었던 라틴어 불가타 성서로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기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자국어로 된 성서가 필요하였다.

츠빙글리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1520년대의 종교개혁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런데 츠빙글리는 다른 종교개혁자들이나 개혁운동들, 즉 마르틴 루터, 마르틴 부처(Martin Butzer), 재레세파, 세바스티안 프랑크(Sebastian Frank)⁹⁹⁾와 신학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교황의 교권에 도전하고,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서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츠빙글리 역시 교황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능가하는 권위로 성서를 제시하였다. 취리히 바서교회(Wasserkirche) 옆에 세워진 츠빙글리 동상은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로마의 교황에 대한 종교적 투쟁을 상징하는 성서와 정치적 투쟁을 상징하는 칼이 각각 그의 오른손과 왼손에 들려있다. 이러

99) 초창기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였으나, 결국 루터와 결별하고 신비주의를 강조한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이다.

한 츠빙글리의 개혁운동은 훗날 갈뱅으로 이어졌으며, 오늘날 개혁교회의 뿌리가 되었다.

<주요어>

종교개혁, 홀드리히 츠빙글리, 『취리히 성서』,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르틴 루터

<Key words>

Reformation, Huldrych Zwingli, Zürcher Bibel, John Wycliffe, Jan Hus, Martin Luther

* 접수일 2017년 8월 24일, 수정일 2017년 10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0월 28일

참고문헌

- 츠빙글리(1522년), “자유로운 음식 선택에 관하여,” 『츠빙글리 저작 선집 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41-106.
- , (1523년), “슈비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츠빙글리 저작 선집 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107-133.
- , (1523년), “하나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 『츠빙글리 저작 선집 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135-195.
- , (1523년), “Auslegung und Begründung der Thesen oder Artikel,” Huldrych Zwingli Schriften II,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95.
- , (1524년), “스위스 연방에 대한 간곡한 경고,” 『츠빙글리 저작 선집 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364-381.
- , (1524년), “목자,” 『츠빙글리 저작 선집 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291-364.
- , (1525년),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주해,” 『츠빙글리 저작 선집 3』,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7, 37-418.
- , (1530년), “믿음의 내용,” 『츠빙글리 저작 선집 4』,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103-139.
- 김영진, “후스는 위클리프주의자인가: 15세기와 19-20세기 위클리프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40 (2016), 1-30.
- 드 하멜, C., 『성서의 역사』, 광주: 미메시스, 2006.
-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박동현, 이상원,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le,” 『성서원문연구』 40 (2017), 265-291.
- 박영배, “성서 번역의 역사와 위클리프 성서,” 『어문학논총』 18 (1999), 129-162.
- 박찬희, “보헤미아의 개혁자 얀 후스,” 『새가정』 692 (2016), 20-24.
- 브로밀리, G. W. (편), 『츠빙글리와 불령거』, 기독교고전총서 19,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 부타, T., 『체코 종교개혁자 얀 후스를 만나다』, 서울: 동연, 2015.
- 스톤, L., 『성경 번역의 역사』, 서울: 포이에마, 2011.
- 스티븐스, W. P.,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스핑카, M. (역), 『개혁의 주창자들: 위클리프부터 에라스무스까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 위커, W., 『세계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6.
- 장운재, “얀 후스와 체코 종교개혁: 그의 화형 600주년을 맞이하여,” 기독교 사상 679 (2015), 226-239.
- 조지, T., 『개혁자들의 신학』, 서울: 요단출판사, 1994.
- 하아스, M., 『홀드리히 츙빙글리』,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1999.
- Aland, K. / Aland, B., *Der Text des Neuen Testament*, Zweite, ergänzte und erweit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 Belt, H. v. d., “Sola Scriptura: An Inadequate Slogan for the Authority of Scripture,” *Calvin Theological Journal* 51 (2016), 204-226.
- Hargreaves, H., “The Vernacular Scriptures: 3. The Wycliffite Version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2. Ed. by G. W. H. Lam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387-415.
- Hunter, M. J., “The Vernacular Scriptures: 1. The Gothic Bible,”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2., Ed. by G. W. H. Lam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338-362.
- Lavater, H. F., “Die Zürcher Bibel von 1524 bis Heute,” *Die Bibel in der Schweiz: Ursprung und Geschichte*, Ed. by U. Joerg, D. M. Hoffmann, Basel: Schwabe & Co., 1997, 199-218.
- Liguš, J., “Master Jan Hus: Obedience or Resistance,” *European Journal of Theology* 24 (2015), 49-56.
- Locher, Gottfried W., “Zwingli und Erasmus,” *Zwingliana* 13 (1969), 37-61.
- Lockwood, W. B., “The Vernacular Scriptures: 4. Vernacular Scriptures in Germany and the Low Countries before 1500,”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2., Ed. by G. W. H. Lam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415-436.
- Peckham, J. C., “Sola Scriptura: Reductio Ad Absurdum?” *Trinity Journal* 35

(2014), 195-223.

Sigrist, C., “<Sola scriptura> - Alleins die Schrift: Zur Beobachtung der Bibel damals und heute,” *Die Zürcher Bibel von 1531: Entstehung, Verbreitung und Wirkung*,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11), 8-25.

Simmler, F., “Synchrone lexikalische, syntaktische und makrostrukturelle Variabilität in Luthers Septembertestament 1522 und der deutschsprachigen Zürcher Bibletration von 1524 bis 1535,” *Zeitschrift für Deutsche Philologie* 127 (2008), 151-192.

Volz, H., “Continental Versions to c. 1600: 1. German Version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3., Ed. by S. L. Greensla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94-109.

<초록>

츠빙글리의 종교개혁과 『취리히 성서』

민경식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본 소고는 종교개혁자들의 성서, 특히 츠빙글리가 시작한 스위스의 종교 개혁운동에서 『취리히 성서』가 차지하는 사회적, 정치적 의의와 『취리히 성서』의 특징을 관찰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츠빙글리의 선구자들, 즉 잉글랜드의 존 위클리프, 보헤미아의 얀 후스, 그리고 독일의 마르틴 루터를 언급한다. 그들이 번역하거나 사용하였던 자국어 성서가 그들이 개혁운동에 어떤 중요성과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배경에서 츠빙글리의 개혁 운동과 『취리히 성서』를 연구한다.

종교개혁은 단지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혁명이었다. 로마가톨릭 교황을 구심점으로 일원화되어 있던 유럽사회가 다원화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 종교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가톨릭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로마가톨릭에 항거하며, 교황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권위와 구심점으로서의 교황의 자리에 성서를 올려놓았다. 그들에게는 성서야말로 교황의 전통적인 권위를 넘어서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해석의 권위를 교황이 쥐고 있었던 라틴어 불가타 성서로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기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국어 성서가 필요하였다. 특별히 루터는 불가타가 아니라, 원어에서 독일어 성서를 번역하였다.

종교개혁자 츠빙글리 역시 로마가톨릭 교회와 로마교황에게 도전하였고, 교황의 권위를 능가하는 권위로 성서를 제시하였다. 신약의 경우, 독일어성서를 루터가 이미 번역, 보급하였지만, 츠빙글리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알레만어로 개정하였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루터의 성서 본문을 받아 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본문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구약의 경우, 츠빙글리가 루터보다 먼저 독일어성서를 번역하고, 출판하였다. 『취리히 성서』는 원어에서 번역된 최초의 독일어완역성서이다. 바로 이러한 『취리히 성서』가 스위스 종교개혁의 구심점이 되었다.

<Abstract>

The Reformation of Zwingli and the ‘Zürcher Bibel’

Prof. Kyoung Shik Min
(Yonsei Uni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social and political meaning of the ‘Zürcher Bibel’ in the context of the Swiss Reformation, and to observe some characteristics of this Bible as well. For this purpose we look into the pioneers of Zwingli like John Wycliffe, Jan Hus, and Martin Luther first.

The Reformation is not only a religious event within the Church which caused a schism between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Protestants, but a socio-political movement that changed the whole Europe into a pluralistic society. The reformers protested against the Roman Catholic Church, built their own power without the Popes, and placed the Bible on the empty seat of the ultimate authority which so far occupied

by the Popes. In such a process, Wycliffe translated an English Bible, Hus revised a Czech Bible, and Luther translated a German Bible from its original languages.

Zwingli also resisted the Pope and tried to achieve complete independence of the Swiss Confederation from the Roman Catholic Church. He put the authority of the Bible over that of the Pope and revised the 'Lutherbibel'(1522, New Testament) into Allemanic German(1524). It was, however, not a mechanical revision. In some cases, Zwingli did not accept Luther's texts and chose his own from textual traditions. Afterwards he translated the Old Testament directly from its original language(Hebrew) and finally published the first printed German Full Bible translated from its original languages in 1531. This 'Zürcher Bibel' became the centerpiece of the Swiss Reformation.